



네오위즈 게임즈 보안팀

Security Balancing

운동선수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선수가 가진 신체 혹은, 공격과 수비에 대한 균형능력은 어느 종목에서나 공통적인 기준이 된다. 정보보호 분야에서도 이 균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기술과 관리, 규제와 자율, 보안성과 가용성, 이 모든 것을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은 균형감각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유분방하기로 소문난 웹 서비스 업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기업의 보안을 책임져야 하는 네오위즈 게임즈 보안팀도 그런 균형감각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준다.

글· 사진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현재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등장하기 전인 90년대 초, 전화모뎀을 달고 채팅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리고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과 같은 인터넷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채팅 서비스도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1997년 많은 벤처기업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아이디어 하나로 출발한 네오위즈는 ‘세이클럽’이라는 당시에는 신선한 채팅 서비스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10년이 지난 지금, 네오위즈는 채팅 서비스는 물론, 국내를 대표하는 게임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 성장과 동시에 네오위즈의 보안팀도 바빠졌다.

균형 #1 게임 밸런싱을 제공하라

네오위즈 전체 인프라를 보호하는 네오위즈 게임즈 보안팀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약 1년 전. 그전까지 대부분의 기업처럼 네트워크와 시스템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보보호 활동을 했고, 부서가 조직된 현재에는 보안부서의 위상과 체계를 정립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게임이라는 특수한 서비스가 비즈니스의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면서 이들 정보보호 부서 역시 그에 맞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 “네오위즈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다른 사용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네오위즈 보안팀의 가장 큰 화두예요.” 네오위즈 게임즈 보안팀 서홍원 팀장은 이를 두고 게임 서비스의 밸런싱을 맞추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네오위즈 보안팀이 말하는 게임 밸런싱은 온라인 게임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사용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른바 ‘게임 핵’이라고 불리는 불법 툴로부터 프로그램 소스를 보호해 다른 이용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온라인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 게임 서비스 업체의 보안팀으로서 모든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가용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기본이다. “최근 타 기업도 그러하지만 정보보호 부서의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까지 해왔던 기술적인 부분 이외에도 관리적인 분야까지 업무를 확장할 예정이에요. 궁극적으로 보안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죠” 라는 서 팀장은 이를 위한 보안 부서의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다고 한다.



“인력보안은 정보보호 활동 중 가장 기초적이고 또 어려운 것임은 분명하지만 속 시원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다만,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죠.” 네오위즈 게임즈 보안팀 서홍원 팀장은 인력보안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균형 #2

자유로움 속에서 틀을 찾다

보안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다며 겸손해 하는 서 팀장이지만 네오위즈는 지금까지 별다른(?) 사고 없이 약 1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왔다. “크게 두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불필요한 것은 무조건 막는다는 것과 시스템, 네트워크팀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사용한다는 것이 또 하나의 이유예요.” 작은 프로그램이나 틀, 심지어는 보안 툴도 스스로 개발해 사용하기 때문에 상용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취약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이 서 팀장의 설명이다. 이런 회사의 기술적 전통은 자율적인 네오위즈의 문화와도 밀접하다고 그는 덧붙인다. 대부분의 웹 서비스 기업의 특징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자율문화가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오히려 문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보안팀은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틀만을 제시하게 되는데, 구성원의 평균연령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규제의 정당성을 설명해 준다면 비교적 잘 따라주는 편이죠.” 네오위즈 게임즈 보안팀 임택기 대리가 회사의 분위기를 설명해 준다. “보안업무는 결국 타 팀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봐요. 지금까지 눈에 띄는 사고가 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시스템, 그리고 개발부서가 적절히 협업을 해왔기 때문이죠. 보안의 종착점에 대해 모든 직원들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것을 어떻게 이뤄갈 것인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라는 임 대리의 설명 속에서 네오위즈라는 기업의 문화와 그 속에 스며든 보안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균형 #3

아웃소싱도 결국 사람이다

정보보호 전문가들은 정보보호 활동에 있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사람’을 꼽는다. 실제로 담당자의 부주의, 아웃소싱 인력의 낮은 보안인식, 그리고 기업의 핵심기술을 알고 있는 인력들의 이동문제까지. 지금까지 등장했던 적지 않은 사건 사고는 사람에 의해 비롯됐다. 네오위즈 보안팀은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을까. “사람이 정보보호에 있어서 핵심이라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감해요. 하지만 기술적인 대처방법과는 달리, 사람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대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점도 사실이죠. 결국 문제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만이 있을 뿐이죠”라는 서 팀장은 때문에 직원들을 위한 처우개선 등에 대해서도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간단한 예로 퇴사자에 대한 보안정책을 적용하기보다, 핵심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나, 아웃소싱 인력을 자회사로 편입시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 등이 네오위즈가 선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력 보안의 핵심이다.

최근 보안부서의 업무가 많아지고 또 그로 인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안수준을 높이려는 기업의 보안팀은 강력한 규제를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네오위즈 게임즈 보안팀은 ‘강력함’ 대신, ‘편안함’을 선택하고 있다. 물론 어떤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보안활동에 자꾸 눈길이 가는 것은 왜일까. **S**